



오창국 목사
백운교회

올해 창간 6월이 아니라 7월에 시작되었다. 달력은 그대로인데 계절은 조금씩 자리를 옮기고 있다. 익숙했던 시간의 감각이 미세하게 흔들린다. 비는 여전히 내리지만 방식은 달라졌다. 짧고 강하게 쏟아지기도 하고, 예고 없이 멈추기도 한다. 농사라는 일이 점점 예측보다 벼랑에 가까워지고 있는 이유다. 씨를 뿌리고 기다리고 수확하는 시간의 리듬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지 못하고, 그 사이마다 불안정한 봄이 생긴다. 그 봄은 단순한 기후 변화가 아니라 농업이 전체 해운 시간의 질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다.

이 변화는 곧 생산 조건을 바꾼다. 같은 땅에서 같은 방식으로 농사를 지어도 결과는 더 불확실해지고 계획은 더 자주 수정된다. 여기에 생산비 상승이 겹친다. 하우스 자재, 비료, 포장재, 인건비, 택배비까지 오르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러나 이 비용 상승이 시장 가격으로 안정적으로 반영되기는 어렵다. 오히려 시장에서는 다른 방식의 조정이 작동한다. 각종 할인행사와 판촉, 유통 단계의 가격 조정이 반복되면서 농산물의 '정상 가격'이라

나타난다. 이 구조 속에서 농민이 마주하는 부담은 단순한 수익 감소가 아니다. 생산비는 상승하고 있지만 시장이 기대하는 가격은 과거의 할인 경험에 고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농민은 자신의 원가 구조가 아니라 소비자가 기억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 "그때는 행사였고 지금은 일상입니다"라는 말이 반복되는 이유는, 이 두 가격이 이미 서로 다른 세계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이 할인 구조

하다. 농산물은 계절성과 무관성 때문에 가격을 유지할 수 있는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가격 협상은 '버틸 수 있는 시간'의 차이에 결정된다. 반면 할인 구조는 그 시간을 압축한다. 빠른 회전과 즉각적인 소비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농산물 가격은 생산의 시간이 아니라 시장의 순간에 의해 더 크게 흔들린다. 결과적으로 할인은 소비자에게는 '혜택의 경험'으로 남지만, 시장 구조 안에서는 '기준의 재설정 장치'로 작동한다. 문제는 이 기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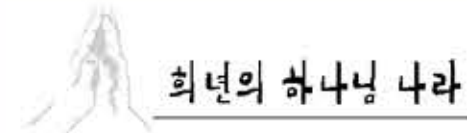
농산물 가격은 왜 할인에 잠식되는가

는 개념 자체가 점점 흐려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할인이라는 행위의 성격이 단순한 '일시적 가격 인하'가 아니라는 점이다. 한 번의 할인은 이벤트로 끝나지만, 반복되는 할인은 시장의 기준을 바꾼다. 소비자는 점점 '정가'보다 '경험한 최저가'를 기준으로 삼게 된다. 문제는 이 기준이 개인의 기억에 머무르지 않고 집단적 기대가 된다는 점이다. 특정 시기에 형성된 낮은 가격이 이후의 거래 조건을 사실상 규정해 버리는 현상이

가 '일시적 선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가격 기준 형성 장치'로 작동한다는 점이다. 할인은 유통 과정에서 재고를 조정하거나 소비를 촉진하는 기능을 갖지만, 반복될 경우 가격의 기준선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한 번 낮아진 기준선은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후의 정상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가격처럼 인식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이것은 단순한 유통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 구조의 문제이기도

하다. 농민의 생산 현실과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비는 장가격으로 상승하지만 가격 기준은 단기 경험에 의해 형성된다. 이 비대칭이 누적될수록 농업은 구조적으로 약화된다. 결국 농민이 요구하는 것은 단순하다. 더 많은 이익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이 지워지지 않는 가격, 그리고 그것이 일시적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기준으로 자리 잡는 것이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박창수 목사

기독교학 박사
기독교경제학연구소 이사장
호남신학연구원
주거권기독교연대 공동대표

레 25:14, "(땅을) 네 이웃에게 팔든지 네 이웃의 손에서 사거든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팔다'(마카르)라는 동사가 땅을 목적으로 할 때, 그 뜻은 '소유권을 팔다'(sell)라는 뜻이 아니라, '사용권을 팔다' 곧 '임대하다(lease)'라는 뜻이다. 토지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레 25:23), 토지 소유권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으므로, 사람이 토지 소유권을 사고팔 수 없는 것이다. 오직 토지 사용권을 사고팔 수 있을 뿐이다. 즉 사고파는 것은 토지 자체가 아니라 토지의 사용권일 뿐이다. 그리고 이 토지 사용권은 영구적으로 사고팔 수 없고(레 25:23), 다음 회년까지 한시적으로 사고팔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회년이 오면 토지 사용권을 사고팔 계약 기간이 종료되기 때문에, 토지 사용권을 판 사람이 토지를 되찾는 것이다.

했수, 소출의 다소를 좌우하는 땅의 비옥도에 따른 한 해 동안의 땅의 가치, 이 두 가지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이다. 그럼 하나님께서 토지 사용권을 다음 회년까지 한시적으로 매매하는 것은 왜 허용하셨을까?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첫째, 빈자의 생존을 위한 사회 복지 측면의 배려이다. 가난한 사람이 몸이 아프거나 무복이된 사유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기업인 땅을 다음 회년까지의 토지사용권 가격을 일시불로 받고 팔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그 가족의 긴급한 생존을 위한 자금을 마련해 주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하나님께서 토지를 영영히 매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회년까지 한시적으로 파는 것조차도 금지하셨다면 그 빈자의 가족의 고통은 경감될 수 없었을 것이다. 둘째, "땅을 경복하라"(창 1:28)는 창조

토지 사용권의 한시적 매매

14절과 17절에 거듭 나오는 '속이지 말라'는 말씀의 본뜻은 '임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속이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나'는 '임대하다'라는 뜻이다. 그럼 누가 누구를 임대하기 쉬운가? 무지한 빈자들, 강자가 약자를 임대하기 쉬운 것이다. 곧 부하고 강한 자들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임대하지 말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 시대의 언어로 표현하면, 시장에 모든 것을 팔대적으로 맡겨야 한다는 시장근본주의에 대한 비판을 내포하고 있다. 예컨대 흉년이 들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생존을 위해서 땅을 매각하려고 내놓아 일시적으로 많은 땅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데, 이처럼 땅의 공급이 크게 증가하는데 땅의 수요는 전과 같다면 땅의 가격이 폭락할 것이다. 그런데 이 시장 가격에 따라 부하고 강한 자들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로부터 땅을 헐값에 사들이는 것은 바로 임대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이것을 금하신 것이다. '속이지 말라', 곧 '임대하지 말라'는 말씀은, 토지사용권 매매 가격을 결정할 때,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폭락한 가격이 아니라 정당한 가격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정당한 가격은 이어지는 구절에서 지금부터 다음 회년까지 남은

명령의 수행을 위해서이다. 몸이 아프거나 무복이된 사유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땅을 돌려서 쉼게하게 두지 않고 그 땅을 경작할 수 있는 다른 사람에게 다음 회년까지의 토지사용권 가격을 받고 파는 것은 평년에 땅을 경작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인식년과 회년에 휴경하여 땅이 인식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평년에 땅을 경작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이다. 이는 마치 인식일에 사람이 일을 하지 않고 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평일에 열심히 일하는 것 역시 하나님의 뜻인 것과 같다. 레 25:17, "너희 각 사람은 자기 이웃을 속이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라 너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은 여기 토지법에 서술된 아니라 대부법과 주택법(36절,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나와 함께 생필하게 할 것인즉")에서도 반복된다.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땅값을 헐값으로 후려쳐서 사들이지 않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에게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이면서 또한 가난한 사람을 집에 맞아들여 함께 사는 것이고, 가난한 사람을 얹히게 부리지 않는 것이다.

외부필자의 원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리한 질문 명쾌한 답변 101가지 구약 Q & A

신독일 교수 Q&A 시리즈 2_40 성막의 다양한 명칭

'성막'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지파 진영 가운데 위치한 장소로 쓰이는데 이 단어가 출애굽기-신명기에서 '장막' 또는 '회막'으로도 쓰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장소를 지칭하는 데 이 세 단어가 구체적으로 구별되는 의미 없이 혼용해서 사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저마다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성막'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쉬칸'이라고 합니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거처"를 의미하는 '사'에서 온 명사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의미는 "거처"가 됩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거처는 아니고 고대 사람들이 거하는 곳이 텐트 같은 것이었기에 "장막"이란 의미로 쓰입니다(민 16:24, 27; 24:5). 이 단어가 구약에서 130번 쓰인 중에 "성막"이라는 의미로 쓰인 경우는 74번입니다. 그런데 '성막'이라고 해도 문맥에 따라서 지칭하는 바가 다릅니다. 거령 어떤 경우에는 장막 전체를 성막으로 지칭하기도 하고(출 25:9), 성막이란 말이 성소와 지성소를 포함한 내부 구조만 가리키는 경우도 있습니다(출 26:1). 이 차이는 범위와 관련된 것입니다. 출애굽기 33:7에는 모세가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처사 진과 멀리 떨어져서 해서 '회막'이라 불렀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기 전에도 성막을 가리켜서 회막이라고 명명한 본문이 있습니다(27:21; 28:43; 29:4, 10, 30, 32, 42, 44; 30:16, 18, 20, 26, 36; 31:7). 이때 장막은 '오הל'로서 보통 천막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그것을 '회막'이라고 했을 때 그 단어는 '오הל모에드'입니다. '모에드'는 만남이나 회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 번역에는 '회막'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명칭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만나주시고 특별히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계시하시는 기능을 가진 장소로서 성막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막'은 또 '증거의 장막'(오הל 하에무트)으로 표현되기도 하고(민 9:15; 17:7~8; 18:2) '증거의 성막'(미쉬칸 하에무트)라는 이름으로도 쓰입니다(민 1:50, 53; 10:11). 성막에 이 명칭이 주어진 것은 성막 내 지성소에 인치된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 두 돌판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엄격히 말해서는 '증거'라고 번역되는 '하에무트'는 '언약의 그 자체'를 뜻하기 보다는 '언약의 석판'이나 '언약의 조항' 같이 근본적으로 구체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특히 언약은 십계명 이전에 세워졌지만 '증거'는 십계명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컨대, '성막', '장막', '회막', '증거의 장막' 그리고 '증거의 성막'이 하나님의 임재와 관련되어 사용될 때는 다 같은 대상을 지칭합니다. 그러나 그 낱말이 의미하는 바는 다릅니다. 일단 성막과 장막은 동의어로 쓰입니다. 그것은 구조물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나머지 명칭은 그 구조물의 종교적인 용도를 드러냅니다.

본란은 신도들이 알고 싶어 하는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저자와의 힘을 거쳐 인정한(신독일 지음/기독교문서선교회)

imsTV (ims 21.tv)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촬영 '순간의 선물'

1. 언제 어디서나 정보검색 가능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하기만 하면 종이신문의 모든 콘텐츠와 기사 및 광고를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검색 가능합니다.
2. 하루 더 빨리 보는 신문
홈페이지를 통해서 종이신문보다 하루 앞서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종이신문이 배포되는 토요일에 앞서 금요일 저녁에 홈페이지를 통해 업데이트된 기사를 미리 볼 수 있습니다.
3. 지난 기사·일반 정보·성경말씀 검색
홈페이지를 통해 지난 기사 검색은 물론, 다른 포털도 이동하지 않고도 일반 정보와 성경말씀 등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활용한 인터넷 미션21은 종이신문이 갈 수 없는 지구촌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습니다.

